

◆ 8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 8월 13일(목) 9:00부터 보도

보도자료

2026. 8. 14.(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문의 ☎ 02-6919-3860

대학입학지원실장: 김삼열 대입상담센터장: 김시라

대교협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누적 관람객 64만 명 돌파

2010년 첫 개최 이후 연평균 4만 3천 명 방문

7월 23~25일 코엑스서 개최... 150개 대학 참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주관한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7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전국 150개 대학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은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의 누적 관람객은 64만 4,6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은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한 해 평균 4만 3천 명이 찾은 셈이다.
- 이번 박람회에서도 「1:1 대입상담관」에서 진로진학 상담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수험생 개개인의 성적과 적성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했다. 「1:1 대입상담관」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를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입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학 설계를 지원한다.

- 박람회 현장에서는 각 대학 부스마다 입학 정보를 확인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대학별 특성화 학과와 취업 유망 학과를 중심으로 열띤 상담이 펼쳐졌다.
 - **자율전공선택제, 첨단 학과** 등 변화 폭이 큰 분야의 실질적 합격선을 파악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 3층 「1:1 대입상담관」에서 맞춤 컨설팅을 통해 대학과 학과를 추천받은 후 1층 박람회장으로 이동해 해당 대학 부스를 직접 방문해 교직원 상담을 받는 학부모도 눈에 띄었다. **사전 맞춤 상담을 바탕으로 대학별 심화 상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 박람회가 회를 거듭하면서 참가 대학들의 활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성철 남서울대 입학처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의 교육과정·입학전형·특성화 분야를 직접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의 장이다.** 초기 박람회가 대학별 입학전형과 모집요강을 안내하는 정보제공 중심의 단순 학교 알리기였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조기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합격 가능권 수험생을 적시에 확보하는 리쿠르팅 형식으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 이어 “상담도 과거 현장에서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제시하면 입학사정관이 대략적인 합격선을 가늠해 주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와 대학 자체 입시 진단 프로그램을 연계해 수험생 성적을 사전에 입력·분석한 후 전년도 합격자 성적 분포와 환산 점수 등을 바탕으로 1:1 정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장부환 경일대 입학본부장도 “전국 대학 부스마다 특성화 학과와 취업 유망 학과를 중심으로 입학 정보를 얻으려는 수험생들의 열기를 현장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 상담을 거친 수**

험생들의 지원율과 등록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입학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수시 박람회는 정시 박람회와 달리 **진학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오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도 자주 눈에 띈다**”며 “수험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희망 대학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수시 모집 선발 비율 증가 및 입시 환경 변화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교협은 앞으로도 대학 자율성과 특성화를 존중하는 한편,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학과 수험생을 잇는 든든한 정보의 가교 역할을 최우선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최근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연도별 현황

붙임**최근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연도별 현황**☐ 대입상담교사단 연도별 상담인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담교사(중복인원 제외)	64명	79명	65명
상담인원(사전접수)	564명	726명	767명
상담인원(현장접수)	174명	106명	73명
총 상담인원	738명	832명	840명

☐ 최근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관람객 수

학년도(개최연도)	박람회 기간	관람객 수(명)	비고
2027학년도(2026년)	3일간	22,578	
2026학년도(2025년)	3일간	22,914	
2025학년도(2024년)	3일간	25,244	
2024학년도(2023년)	3일간	25,801	3일간 단축 운영 시작

※ 박람회 정보 및 개최 결과(사진 및 통계자료 등)는 <https://univexpo.kr>에 자세하게 개최되어 있음